

[2019 View 가을 통권 49호]

Anyang Arts High School

안양예술고등학교



- 연극영화과
- 사진영상과
- 무용과
- 미술과
- 문예창작과
- 음악과

발행인_ 황영남 | 발행일_ 2019. 10. 4

발행처_ 안양예술고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5번길 40 (안양동))

전화번호_ 031-466-8853~6 | 홈페이지_ www.anyangart.hs.kr

무슨 고민있어?

중학교 후배가 안양예고 진학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정보를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안양예고에는 View가 있잖아 View를 보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거야

그렇군요! View를 자세히 보라고 해야겠어요 감사해요 선배님!

사진 · 황인성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 입학원서 접수 | 2019. 11. 01(금) ~ 11. 06(수) 오후 5시까지

| 실기전형 | 2019. 11. 09(토) ~ 11. 10(일)

학과	연극영화과	음악과	무용과	미술과	문예창작과
모집 정원	80	80	40	80	40
구분	기간	유의사항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접수)	2019. 11. 01(금) ~ 11. 06(수) 오후 5시까지	1. 인터넷 접수만 가능함 2. 인터넷 접수 사이트 http://anyangart.hs.kr 3. 인터넷 접수 후 원서를 출력하여 사진을 붙이고,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4. 수험표는 출력하여 실기고사시 지참(원서와 동일한 사진 부착)			
서류제출기한	2019. 11. 01(금) ~ 11. 06(수)	제출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본교에 방문 접수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는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11월 6일(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실기고사 안내	2019. 11. 08(금)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실기고사(전형기간)	2019. 11. 09(토) ~ 11. 10(일)	실기고사 당일 수험표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19. 11. 13(수)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합격자 예비소집	2019. 11. 23(토) 오후 2시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본교 연암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로 문의 바랍니다.

2020학년도 안양예술고등학교 재능계발 영재학급 모집

| 원서접수 및 실기전형 원서접수 | 2019. 10. 26(토) ~ 11. 1(금) GED 인터넷 접수

| 실기전형 | 2019. 11. 23(토) 09:00 ~ 13:00(예정)

| 지원자격 | 2019학년도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과	연극영화과	무용과	미술과	문예창작과	음악과	계
모집 정원	1	1	1	1	1	5
대상	초6~중2	초4~중2	초5~중2	초6~중2	초5~중2	2019년 학년 기준
학급당 정원	20	20	20	20	10	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안양예술영재학급)을 참고하세요. www.anyangart.hs.kr

연극영화과 | 여름 연극 작품 발표회 & 안양 뮤지컬 콩쿠르

“더위를 날린 뜨거운 열정”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본교 연암홀에서 연극영화과 2학년 학생들의 여름 연극 작품 발표회가 공연되었다. 이번 여름 연극 작품 발표회는 정의신의 <가을 반딧불이>, 널 사이먼의 <Lost In Yonkers>, 레지널드 로즈의 <12인의 성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하며 이룬 이번 공연은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보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연극영화과 학생들에게 값진 경험과 배움이 있었기를 바란다. 8월 24일, 본교 연암홀에서 2019년도 제 2회 안양 뮤지컬 콩쿠르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제 2회를 맞이한 이번 콩쿠르는 전국 1, 2, 3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자유곡 1곡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콩쿠르를 통해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뮤지컬'이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기를 바란다.

글 · 이성은/사진 · 연극영화과 제공

사진영상과 | 장수 사진 촬영

“영원히 빛날 한 장의 사진”



사진영상과 학생들이 지난 5월 23일, 7월 12일에 각각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안양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기념사진 및 장수 사진 촬영 봉사를 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사진영상과의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이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한복을 차려 입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고, 촬영한 사진은 액자와 함께 전달되었다. 이번 장수 사진 촬영이 어르신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사진영상과 학생들에게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

글 · 김윤지/사진 · 사진영상과 제공

무용과 | 여름 무용발표회

“더 큰 무대를 위해서”



2019 제5회 여름 무용발표회가 지난 8월 9일에 본교 연암홀에서 열렸다. 이번 제5회 여름 무용발표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무용부장 안수영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는 대입 모의실기평가로 3학년들의 입시 전 자신의 작품을 점검하고 무대 경험을 쌓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이대산조>, <Look away>, <조흥동류 호적시나위>, <Classic etude>, <흥보가>, <Classical movement>, <우리들의 변주곡>, <호남검무>, <Things that remain> 총 아홉 작품으로 무용과 1, 2학년이 여름방학 3주간의 방과후 학교 수업을 토대로 만든 작품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여름 무용발표회는 세계적인 안무가 허용순 선생님의 창작 발레작품이 공연되어 예년에 비해 더욱 더 풍성하고 수준 높은 발표회로 기억된다. 그간 땀 흘리며 연습한 무용과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글 · 김영빈/사진 · 허정현

미술과 | 하이퍼리얼리즘 전시회

“종이에 실재를 담다”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본교 연암홀에서 미술과 학생들의 '하이퍼리얼리즘' 전시가 열렸다. 1, 2학년 미술과 학생들이 참여한 이 전시는 디자인, 조소, 동양화, 서양화의 많은 작품들로 채워졌다. 뛰어난 작품들을 보러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전시장을 찾아오시고 응원과 축하의 말을 건네며 전시회를 즐겼다. 그 속에서 많은 정과 배움이 가득 넘쳤다. 꿈과 끼가 많은 안양예술고등학교 미술과 학생들이 흘린 땀과 엄청난 노력으로 2019 '하이퍼리얼리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글 · 엄가은/사진 · 유민주

문예창작과 | 수요낭독 공감 낭독회 & 꿈꾸는 손가락

“동경하는 건 이제 그만 둘래”



지난 7월 31일, 문예창작과 학생들은 '동경하는 건 이제 그만 둘래'라는 이름으로 '수요낭독공감' 행사에 참여하였다. 교보문고 합정점에서 열린 본 행사는 문예창작과 학생들의 작품 총 아홉편을 직접 낭독하고 작품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상영하며 진행되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동경해왔고 동경하고 있으나 간절히 바라기만 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주인공이 되기로 하였다”라는 포부에 맞게 모두가 주인공이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9월 21일에는 본교 연암홀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예대회 '꿈꾸는 손가락'이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다수의 중학생이 대회에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글 · 김다은/사진 · 문예창작과 제공

음악과 | 초·중학생 음악 콩쿠르

“예술의 길을 향한 첫걸음”



지난 8월 24일 토요일 본교 경곡관에서 제 9회 안양예고 초·중학생 음악 콩쿠르가 주최되었다. 이날 총 163명의 학생이 음악 콩쿠르에 참가하였다. 이번 콩쿠르를 통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글 · 박주원/사진 · 황인성



“
연기는 제가 살아가기 위해
숨 쉬는 것과 같아요.

연기가 없는 제 삶은
존재할 수 없어요.

”

금보라 (연극영화과 · 1981년 졸업) 동문과의 만남



배우 금보라 동문과의 만남을 가졌다.
금보라 동문은 후배들을 위하여 데뷔
39년 차에 빛나는 화려한 경력에 맞게
자신만의 연기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쏟아 주었다. 금보라 동문은
1980년 '물보라'로 데뷔하여 현재까지
도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배우 금보라입니다. 1981년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Q. 매년 본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계신데요, 특별
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A. 하루 하루 열심히 살다보니 모교를 떠올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
러다 우연히 모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후배들이 열정적으로 연습
하는 모습을 보니 무엇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교에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Q. 안양예고에서 배운 것 중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
엇인가요?

A. 학교생활을 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주 작은 배움들조차
도 사회에 나오니 다 쓸모가 있고 도움도 많이 되더라고요. 학교생
활을 하며 얻었던 3년의 배움이 지금도 저에게 큰 재산으로 남아
서, 아직도 여전히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Q. 연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나요?

A. 죽기 살기가 아닌 죽을 각오로 연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너무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
기에 그러한 각오가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죠. 미래도 보장되지 않
는 불안정한 직업이거든요. 한순간에 빛나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
안 기억되는 배우가 되기를 바라며 연기를 합니다.

Q. 연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연기는 제가 살아가기 위해 숨 쉬는 것과 같아요. 연기가 없는
제 삶은 존재할 수 없어요.

Q. 힘들 때 버티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힘든 시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아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지금은 날 위해
서 버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할 때 제일 행
복하니까요. 지금은 힘든 것조차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버
렸네요.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A. 세상에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잠시 왔다가 사라지게 되고, 그 후에는 더 힘든 고통의 시간
만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 막연히 꿈만 꾸지 말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기회가 왔을 때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고, 그
빛은 오랜 시간 동안 곁을 밝혀줄 것입니다.

음악과 동문음악회 인터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해라. 그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음악을 대할 수 있다.”



지난 7월 9일, 본교 연암홀 강당에서 2019 안양예술고등학교 음악과 동문음악회가 열렬한 환호와 함께 진행되었다. 진행 역시 작곡을 전공한 라명준 동문이 맡았으며 피아노를 비롯한 여러 악기의 연주와 성악은 재학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동문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다 함께 둘러앉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Q1. 동문음악회에 참여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소영 동문(2011 · 졸업) 긴장도 많이 됐고 몇 년 전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앉아서 선배님들의 연주를 감상했었는데 제가 연주자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떨렸어요.

라명준 동문(2018 · 졸업) 이번 동문음악회에서 해설자를 맡게 되었는데 작곡을 전공하는 것이 해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Q2. 안양예고 재학 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임유빈 동문 (2014 · 졸업)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정말 가족같이 지내던 동기들과의 추억이 기억에 남아요. 유대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만큼 사회에 나가서 동문을 만나면 무척 반가워요.

현수진 동문 (2017 · 졸업) 경쟁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 비해 치열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가족 같았던 편안한 분위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Q3. 동문음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말해주세요.

이재윤 (2017 · 졸업) 사실 기수가 다르면 합주해볼 경험이 별로 없어

요. 이번 동문 연주회를 통해 합을 맞추고 무대 위에서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김채은 (2014 · 졸업) 준비 기간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노력해서 완성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뿌듯해요.

Q4. 같은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2011 · 졸업) 안양예고만큼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수준 높은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힘내고 열심히 해서 언젠가 동문 연주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백하은 (2012 · 졸업) 고민 많은 사춘기 시절을 안양예고에서 보내면서 목표와 생각을 뚜렷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친구들과 음악 얘기도 많이 나누고요.

조성준 동문 (2012 · 졸업)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잡아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입시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글 · 최연희/사진 · 허정현, 이수



동문음악회 참여 동문 프로필

반주	이소영 (2011 ·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재학
Soprano	백하은 (2012 · 졸업)	명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 다수의 오페라 주역
Bass	조성준 (2012 · 졸업)	연세대학교 졸업 / 다수의 오페라 주역
반주	김채은 (2014 ·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재학
Oboe	임유빈 (2014 ·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 재학
반주	이재윤 (2017 · 졸업)	서울대학교 1학년 재학
Viola	현수진 (2017 ·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3학년 재학
해설	라명준 (2018 ·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

해외진로예술탐방 수기

“순식간에 지나간 특별한 기억”



문예창작과 1년 엄상운

7월 17일, 안양예술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아래는 방학 중 해외진로예술탐방을 다녀온 문예창작과 1학년 엄상운 학생의 수기이다.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미국의 뉴욕과 보스턴으로 해외진로예술탐방을 다녀왔다. 세부 일정은 두 개의 조로 나뉘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조에 신청하는 방식이었는데, 덕분에 자신의 전공에 더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속했던 B조는 주로 미술관 위주로 일정을 소화했다. 휘트니, 메트로폴리탄, 구겐하임, 보스턴 미술관으로 총 네 개의 미술관이었다. 많은 자유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미술관이 넓어서 구석구석 둘러보지 못한 게 아직까지도 아쉬움이 남는다. 미술관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통틀어 모든 시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시대별로 달라지는 작품들의 특징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었던 점 중 하나였다.

이번 예술탐방에서 가장 좋았던 일정은 대학 탐방이었다. 하버드와 예일대학교 외에도 파슨스 디자인스쿨과 뉴욕 대학교에 갔는데 만약 혼자 간 여행이었다면 이 대학들을 자세히 둘러보는 경험은 갖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실제로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 미국 학생들의 수업 방식을 직접 체험해보니 재미있었다. 그리고 방문한 대학교들은 하나같이 건물이 아름다웠는데 그중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은 예일대학교였다. 중세풍 느낌이 나는 도서관 건물과 그 앞에 깔린 푸른 잔디를 한눈에 담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7박 9일간의 일정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고, 즐거웠던 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은 여행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접했던 수많은 작품과 그림 같은 풍경, 어쩌면 다시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를 많은 경험은 나의 견문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여행을 원동력으로 삼아 시작하는 2학기 생활도 힘차게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 유민주/정리 · 임민지



대산 청소년 문학상 금상 인터뷰(3-7 이인서)

“제 27회 대산 청소년문학상 금상 수상자를 만나다!”



문예창작과 3년 이인서

여름방학 기간 중 진행되었던 대산 청소년문학상 캠프에서 본교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인서 학생이 치열한 경쟁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인서 학생과의 인터뷰이다.

Q. 어떤 작품으로 수상하게 되었나요?

소설 제목은 '난 네게 엄지손가락을 누를 게'입니다. 낯선 제목에 의아함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 독일에서 통용되는 관용어예요. 소설의 배경이 독일이기도 하고,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 이질감이 느껴지는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 세대가 느끼는 전쟁의 참상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군인 출신 할아버지를 둔 주인공과,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할아버지를 둔 또 다른 주인공. 이 두 인물을 통해 전쟁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마주한 일상적 혼란에 대해 그리고 싶었습니다.

Q. 수상 소감을 들려주세요.

고등학교에 입학도 하기 전부터 꿈꿔오던 대회였기에, 이름이 불리고 시상대에 올라섰을 땐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온 마음을 다해 쓰고 퇴고한 작품이었기에 그 진심이 심사위원분들께 닿은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다미 선생님과 김유미 선생님, 그리고 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A파트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Q. 대산 청소년문학상 수상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할 게 있다면?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세상의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것. 그것이 소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의 삶과, 가치관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등은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듯 후배님들도 그 힘을 떠올리며 글을 써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지치지 않고 소설을 써나가고 싶어요.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를 인물들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타자를 치고 싶습니다.

글 · 최연희

대산청소년 문학상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예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한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모전이다.

〈수상작〉

난 네게 엄지손가락을 누를게

기념관은 가족 단위로 관람을 온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부터 파란 눈의 외국인까지 국적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었다. 그러던 순간 어느 전시관 앞에서 린이 걸음을 멈췄다. 월맹군 복장의 마네킹이 세워진 해외 파병 전시관이었다.

(중략)

“한국은 월남전에서 벌어들인 외화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월남전은 한국이 산업화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패배했지만 따지고 보면 월남전은 승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녀의 말에 따라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설명하고 있는 건 내가 학교에서 배웠고 교과서에서 수도 없이 보아온 내용이기도 했다. 하지만, 하지만…… 나는 슬쩍 고개를 돌려 린을 살폈다.

린은 입을 꼭 다문 채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도슨트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미군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미국인으로 보이는 무리의 남자들은 손뼉을 쳤고 그들의 유쾌한 반응에 사람들은 웃었다. 그러던 중 우리 속 누군가의 질문으로 인해 그녀의 설명이 잠시 끊겼을 때, 린은 뒤를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Das ist ein Durcheinander.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확한 독일어 발음으로 내뱉는 그 말을 나는 분명히 들었다. 엉망진창이야, 라는 말이었다. 유학 생활을 하며 독일어가 들려온다면 신경을 곤두세우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기에 잘못 들었을 리 없었다. 어느새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친 큐레이터는 어느 전시품을 향해 사람들을 이끌었고, 수많은 이들은 그녀의 걸음에 맞춰 그곳으로 옮겨갔다. 린은 그사이에 선 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휙쓸리듯 빠져나간 인파를 바라보았다. 어린아이, 나이 지긋한 노인, 파란 눈의 외국인……. 그들은 모두 큐레이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길 위의 인문학」 & 안양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발표회·수료식

“미래 예술인 양성을 위한 알찬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2019 안양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발표회·수료식



「길 위의 인문학」 청소년, 공연예술을 만나다.



「길 위의 인문학」 청소년, 문학의 숲을 거닐다.



「길 위의 인문학」 청소년, 철학을 사유하다.

본교는 미래예술인 양성을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7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안양시립 삼덕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안양시 중학교 독서, 문학, 예술 동아리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본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진행한 '청소년, 공연예술을 만나다', 본교 인문학 동아리 '옴파로스' 학생들이 진행한 '청소년, 철학을 사유하다', 본교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진행한 '청소년, 문학의 숲을 거닐다' 이렇게 총 3주제로 구성되었다. 또 안양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한 예술영재교육을 무사히 마쳤으며, 9월 28일에 발표회·수료식에 참가하였다. 이처럼 본교는 미래 예술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중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글·최연희/사진·김도예, 유민주, 안양시립 삼덕도서관

9~11월 학교행사

학사일정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9. 18(수) ~ 9.20(금)
1, 2학년 1차 지필평가	10. 8(화) ~ 10. 11(금)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10. 15(화)
제7회 영어어휘능력인증대회	11. 8(금)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	11. 9(토) ~ 11. 10(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 14(목)
3학년 2차 지필평가	11. 18(월)~11. 20(수)
1,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11. 20(수)
2020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예비소집	11. 23(토)

학과일정

미술과 추계야외스케치대회	10.18(금)
문예창작과 2019 중학생 문예 대회 꿈꾸는 손가락	9. 21(토)
추계야외백일장	10. 18(금)
음악과 1차 추계연주회	11. 22(금)
2차 추계연주회	11. 25(월)

지도교사 : 윤이정

편집장 : 최연희(2년) 부편집장 : 김다은(2년)

교정부장 : 이성은(2년) 사진부장 : 황인성(2년) 기획부장 : 김가연(2년)

연락부장 : 박주원(2년) 예술부장 : 최윤(2년) 서기 : 오지훈(2년)

사진위원 : 이수(2년), 황인성(2년), 성은제(2년), 김도예(1년), 허정현(1년), 유민주(1년)

편집위원 : 이성은(2년), 김가연(2년), 최윤(2년), 오지훈(2년), 박주원(2년), 엄가은(1년), 홍지수(1년), 김영빈(1년), 안다경(1년), 김윤지(1년), 김예은(1년), 임민지(1년)